

경남, SMR 원스톱 생산·검증라인 구축 본격화

지역 이모저모

275억 규모 SMR 국책사업 유치
2029년까지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축
제조·검사·인증 원스톱 체계 마련
첨단 장비 5종 도입해 기업 지원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SMR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정부 공모 선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가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 핵심 국책 사업을 유치하며 글로벌 SMR 제조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92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275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해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창원 국가 산업단지 확장 2구역에서 추진된다. 경남도·창원시·경남테크노파크·국립창원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산대학교·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 기관

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수요기업으로 함께한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2023년 6월 수립한 '경상남도 원전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출발점으로, 2025년 9월과 12월

'한미 원자력 산업 협력 실행 방안'과 'SMR 글로벌 육성 전략'을 정부에 건의하며 시험검사지원센터 구축을 핵심 과제로 명시한 결과다. 2025년 12월 국비 반영을 거쳐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어졌다.

센터가 들어설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2구역에는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가 구축 중이다. 두 시설이 나란히 들어서면 경남에는 SMR 부품 제조부터 시험·검사·인증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원스톱 SMR 생산·검증 라인이 완성된다.

센터에는 5종의 첨단 검사장비도 도입돼 국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두께 200mm 이상 부품 내부를 3D로 투시하는 산업용 대형 CT ▲검사 소요 시간을 10분의 1 이하로 단축하는 협동로봇 디지털 RT 시스템 ▲고온 상태 용접부를 즉시 검사하는 포터블 레이저 UT 시스템 ▲복잡한 구조 부품에도 적용 가능한 자동 스캔 PAUT 시스템

▲검사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이들 장비는 SMR·원전 외에도 항공 우주·국방·조선·자동차 등 경남 주력 산업에도 활용 가능하다.

경남은 원전 기업 수·제조 인력·매출액 모두 전국 1위로,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중심으로 340여 개 원전 기업이 집적돼 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SMR 특별법과 연계해 SMR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 세계 SMR 생산 점유율 60%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파운드리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SMR 로봇활용제작지원센터, 시험검사지원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SMR 특구 경남 지정을 추진해 전 세계 SMR 제조 시장 점유율 60%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거점 경남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metro



중국 항저우 부산관광 단독 로드쇼 k-pop 공연 무대 관람하는 모습. /부산관광공사

부산, 글로벌 가성비 관광도시 주목

숙박·교통·외식비 낮고 만족도 높아
평균 숙박 53달러로 최저권 평가

부산이 글로벌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국제 무대에서 잇따라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최근 발표된 국제 비교 자료를 통해 부산이 숙박·교통·외식 전반에서 가격 부담이 낮으면서도 서비스와 체감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평균 숙박 가격은 53달러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최저권에 속

한다. 보고서는 이를 단순한 저가가 아니라 '5성급 하드웨어를 3성급 예산으로 제공하는' 가성비로 해석했다.

대중교통과 택시 요금, 외식비 역시 글로벌 주요 도시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숙박시설의 편의성, 팁 없는 외식 구조, 무료 식사 제공 같은 요소도 실제 체감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들의 평가도 부산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익스피디아(Expedia)는 일본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이 선호하는 가성비 해외 여행지 1위로 부산을 선정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7@

울산, 친환경선박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총력

HD현대중공업과 상생 협약 체결

울산시가 조선 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손잡고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나선다.

시는 28일 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금석호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선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신청에 따라, 울산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기자재 소부장 특화단지'는 LNG선 등 친환경선박의 핵심 장비인 '선박용액화가스 펌프' 등을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품목은 기술 난도가 높아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특화단지 조성·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행정·재정적 뒷받침에 나선다. HD현대중공업은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고, 지역 소부장 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충남,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 마련

인구감소 시군과 투자계획 컨설팅

충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과 효율적인 기금 활용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 시군과 함께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28일 스피러스 리솜에서 도·시군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충남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내년부터 전면 개편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군별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되는 기금은 기존 시설 건립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

중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투자계획 평가 시 주민 참여 여부와 중기 계획, 국정과제 반영 여부 등도 주요 기준으로 포함된다.

특히 성과에 따른 재원 배분 격차가 확대되고, 최고 등급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도와 시군 간 투자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한 뒤, 시군별 투자 방향과 사업 목록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인구·산업 구조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각 시군이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북,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 나선다

청년 창업·투자·정책 선순환 추진

경북도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 창업과 투자, 지역 정착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발굴·육성·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벤처투자의 효과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29.8%로 일반 벤처기업이나 전체 기업보다 크게 높았

다. 같은 해 경북에서는 1,167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며 32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역 창업 생태계는 포항·경산·구미를 축으로 한 'G-star 밸리'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와 임당유니콘파크, 구미 스타트업파크 등 거점 시설을 통해 창업기업 입주와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업 지원 체계도 전주기 강화됐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야기유니콘 기업과 TIP S 선정 기업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 기반 확대도 병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 G-star 펀드'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5천억 원, 2034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북=김준현 기자 kih9@

경주시

전국 힐클라임 대회 6월 개최

경주시 한수원 본사와 풍력발전소 일대에서 열리는 '2026 한수원과 함께하는 경주 바람의 언덕 전국 힐클라임 대회'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가치 확산을 목표로 오는 6월 14일 열린다. 이번 대회는 경주시 사이클연맹이 주최·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웰빙원자력본부가 협찬한다. 웰빙원자력본부는 4년 연속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5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경주(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영천시

정우하이텍 150억 투자 유치

영천시는 28일 시청에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정우하이텍과 1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협약식에는 최정애 영천시장 권한대행과 정혜순 정우하이텍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우하이텍은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 내 1만6,528㎡ 부지에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시트 프레임과 카울크로스바 등 자동차 핵심 부품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 완료 시 약 50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영덕군

해녀·해남 복원사업 1기 교육

영덕군이 사라져가는 어촌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해녀·해남 양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어촌 일손 부족과 공동체 활력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다.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는 한국프리아이빙협회와 협력해 '동해안 해녀·해남 복원사업' 1기 교육을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해양 활동과 관광 요소를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어촌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은 총 70시간으로 구성되며 5월 31일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교육생 25명은 잠수 기술과 해양 작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익히게 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tnews8082@

산청군

황매산철쭉제 내달 1일 개막

산청군은 '제42회 산청황매산철쭉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로 꼽히는 황매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철쭉제는 '산청, 봄이 피어나는 찰나'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5월 1일 황매산 철쭉제 단에서 열리는 '철쭉 풍년 제례'로 막을 연다. 풍년과 군민 안녕,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제례를 시작으로 ▲황매산에서 보내는 느리게 가는 러브레터 ▲어린이 황매산 스탬프 투어 ▲장승·바람개비 만들기 ▲아로마 향기주머니 만들기 ▲족욕체험 ▲사진인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